

정과정곡의 연군대상

김 쾌 덕*

- | | |
|-----------|----------------|
| I. 서 론 | 3. 의종의 인물 |
| II. 본 론 | 4. 정서와 의종과의 관계 |
| 1. 배경의 개요 | 5. 정서와 명종과의 관계 |
| 2. 정서의 인물 | III. 결 론 |

I. 서 론

정과정곡은 다른 많은 고려 속요가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 의하여 貶視당했던 것과는 달리, 궁중 예악으로 보충되었으며, 악공취재 때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¹⁾ 또 사대부들은 ‘충신연주지사’로 귀히 여겨 학습하기도 했다.²⁾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이 연군 至情이었기 때문에 刪削을 면한 이 작품의 연군대상은 누구일까? 이를 궁구 천착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연군의 대상을 정서가 유배된 당시의 왕인 의종으로 잡고 있었으나,³⁾ 필자는 여러 상황과 조건을 살펴 연군의 대상(님)이 의종이 아닌, 다음에 왕위를 계승한 명종임을 밝히고자 한다.⁴⁾

*) 부산대 인문대 강사

1) 「經國大典」卷之三 禮典 樂工取才條에 “鄉樂은 三眞勺譜, 與民樂令 眞勺四機 履齋曲 洛陽春 五冠山 紫霞洞 勳動 保大平十一聲, 定大業十一聲을, 進講樂은 豐安曲 前引子 後引子 靖東方 鳳凰吟三機 翰林別曲을, 選宮樂은 致和平三機 維皇曲 北殿 滿殿春 醉豐亭 井邑二機 鄒瓜亭三機 獻仙桃을, 金殿樂은 納氏歌 儒林歌 橫殺門 聖壽無疆을 시험한다”고 돼 있음.

2) 「星湖僊說」卷四 禮樂條 “今之瓜亭界面瀾 亦哀傷流酒 與桑間一套 士大夫莫不學習”

3) 의종이 동왕 5년에 정서를 유배시키면서 “지금의 유배는 조의에 의한 것이므로 오래지 않아 마땅히 소환할 것이다”한 언약과 그의 피상적인 관찰로 연군의 대상을 의종으로 잡고 있는 듯하다. 뒤에서 논급이 되겠지만, 정서에게 한 의종의 이 말은 방편적인 핑계였다고 생각됨.

4) 참고 : 정과정곡의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77) 참조바람.

II. 본 론

연군의 대상을 究明하기 위하여, 정 서가 살았던 당시의 궁중 사정과 배경, 정 서의 인물됨, 의종의 인물됨, 정 서와 의종과의 관계, 정 서와 명종과의 관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작품 자체에서 어떤 합당한 근거를 도출하여 대상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한 항목씩 논술하고자 한다.

1. 배경의 개요

1) 첫째로는 의종을 중심으로, 왕가의 구성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 보려 한다. 지금까지 정과정곡의 연군대상으로 생각된 의종은 인종의 장남으로 고려 18대 왕이다. 그는 ‘太平好文之主’라는 아첨의 말들을 분간 못한 채 무사안일에 빠져, 왕 24년 정 중부 등 무신 일파에 의하여 거처로 폐출되었다. 왕조 중기에 들면서 문치에 주로 힘쓴 고려 왕조는 17대 인종 때를 정점으로 하여 문신 귀족들의 타성과 부패가 극심하였고, 무신멸시 풍조는 더욱 가속화되어 의종 때에 이르러 구체적인 사건으로 폭발, 무신의 난을 유발시켰다고 보겠다. 인종은 이 자점의 제 3녀, 제 4녀를 왕비로 맞이했다가 이 자점의 난 뒤에 적출시켰으며, 왕 5년에 殿中內給事⁵⁾ 임 원후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이가 공예태후다.⁶⁾ 인종과 공예태후 사이에는 5남 4녀가 있었는데, 그 장남이 諱가 暉인 의종이다. 차남은 曠(大寧侯)인데 도량이 넓고 인품이 뛰어났다.⁷⁾ 인종은 태자(의종)가 능히 계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공예태후도 둘째 아들 曠을 사랑하여 태자로 삼으려 했는데,⁸⁾ 이것이 후에 의종으로 하여금 曠과 그 형제를 배척하게 한 큰 이유가 되었다. 인종의 3남은 皓이며, 무신의 난으로 의종이 폐위된 뒤에 왕위를 계

5) 從六品の 벼슬

6) 「高麗史」卷 人十八 列傳后妃 참조.

7) 「高麗史」卷九十 列傳卷第三 宗室一 大寧侯條 “大寧侯曠 毅宗二年 册爲侯 曠有度量 得衆心”

8) 「高麗史節要」卷十一 毅宗莊孝大王 五年條 “...仁宗慮太子不克負荷 任后亦愛次子 將立爲太子...”

승한 19대 명종이다. 명종은 潛邸時에 의종에 의하여 저택을 탈취당하는 등의 곤욕을 치렀다. 인종의 4남은 출가한 원경국사로서 冲曠(玄曠)다. 이도 역모를 꾀했다는 무고로 당하기도 했다. 5남은 暉으로 최 충헌이 명종을 물리치고 그 다음 위를 잇게 한 신종이다. 결국 인종의 5남 중 세 아들이 왕위에 오른 셈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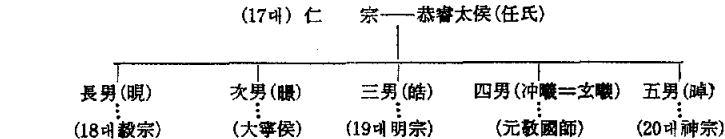
2) 다음으로 정 서가 궁중과 인척관계를 맺게 된 경위를 살펴 본다. 정 서의 아버지는 인종 때 예부상서 지추밀원사 문안공 鄭沆이다. 정 함은 이 자결의 전횡을 배척하였으며, 묘청 일파의 서경천도 운동도 적극 반대한 사람으로 인종의 총애를 받았다.¹⁰⁾ 이런 연유로 정 서를 임 원후의 딸과 혼인시킬 수 있었다. 정 서는 공예태후 임씨의 妹婿로서 그 사이가 아주 가까웠고, 의종, 大寧侯 暉, 명종, 신종 등에게 이모부가 된다. 그가 태자책봉 문제 등에 깊이 관여한 것도 이와 같은 궁중과의 인척 관계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2. 정 서의 인물

인종과 同婿사이였던 정 서는 왕의 총애를 받았음은 물론, 공예태후와도 각별히 가까와 궁중에서 강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생물 연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또 전기적 기술도 그의 생애를 소상히 밝힌 문헌이 없어 불가능하다. 다만 그가 취한 행동 등 처세에 관한 편린이 기록으로 약간 남아 있어 그 인물됨을 대체로 짐작할 수는 있다.

그의 宦路는 蔭仕로 시작되어 정 5품 현직인 내시랑중에 이르렀으나, 의종 5년에는 동래로, 동왕 11년에는 거제로 재유배되었다. 문헌에 散見되는 기록 등을 참작하여 그의 인물됨을 알아 본다.

9)



10) 「高麗史」卷九十七 列傳卷第十鄭沆條, 東國輿地勝覽 三十三 全州條.

1) 정 서의 인품을 기술한 대문으로서는 ‘고려사 권 97 열전 제 10 정 향’조를 들 수 있다. 거기에는 “공예태후의 妹婿로 인종의 총애가 있었다. 성품은 경박하나 재예가 있었다”¹¹⁾라 적혀 있다. 이외도 여러 문헌에 이와 유사한 기록이 실려 있다.¹²⁾ 이 기록에 있는 “성격이 경박하다”는 말이 그의 어떠한 행동거지에서 말미암은 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두 측면에서 이 말에 내포돼 있는 성격을 논해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면 본고의 목적 究明에도 한 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性輕薄’이라는 말은 정 서가 총애를 받았던 인종시 그의 행위에 의하여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렇다면 이는 당시의 여러 상황으로 보아 부득이하게 그에게 붙여진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는 인종의 同婿이며, 총신이였다. 그런 만큼 상당히 궁정에 밀착되어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였을 것이다. 이 점이 정 서가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된 소지였다고 본다. 그를 “재예가 있다”고 했듯이 시문에도 일가견이 있던¹³⁾ 사람이였다. 이런 재주에 권력까지 접했다면 여간 자중하지 않을 경우, 경박하다는 세인의 평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정 서에 대한 “성품이 경박하다”는 기록은 실제 그의 성품이 경박해서라기 보다는, 그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과 당시의 상황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¹⁴⁾ 또 그가 인종의 총애를 받았다면 그렇게 경박한 성품으로 비

11) 「…子叙仕至內侍郎中 以恭睿太后妹婿 有寵於仁宗 性輕薄 有才藝…」

12) ① 高麗史 卷十 列傳 卷第三 宗室一 大寧侯條

② 東國通鑑 卷二十四 高麗紀 毅宗莊孝大王 五年條

③ 高麗史節要 卷十一 毅宗 莊孝大王 五年 閏 四月條

13) 그는 詩文에도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었다. 동문선 권19에 ‘題墨竹後’라는 오언절구 형식의 시가 전한다. 그 시의 내용은 “閑絲弄筆視寫作一竿竹 時於壁上 看幽姿故不俗(한가한 나머지 붓과 머루를 회롱하여, 한줄기 매를 그리었네. 벽에 붙여 놓고 이따끔 보니 그윽한 자태가 짐짓 속되지 않네)”로 되어 있다. 여기서 고결한 선비의 기개를 볼 수 있으니, 그의 성품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유명인들 시를 모아 ‘雜書三卷’이라 했으며, 東人詩話 後序에는 “鄭中丞嗣文(정 서)이 시문을 수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을 두고 이름이다.

14) 고려사는 이인 로에 대하여 “性偏急 許當世 不爲大用(성품이 편협하고 급하여 당세에 거슬러서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정 중부의 난 때 머리를 깎고 피신하였다가 난이 평정되매 귀속하는 등 阿世하지 않았던 이 인로에게도 이런 평이 가해졌다면 기록의 편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난 받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가적으로는 다사다난했지만, 그는 압군이 아니었다. 성품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너그럽고 자비로웠다. 또 학문을 좋아하고 재주가 많으며, 스승과 벗을 대할 때는 예를 잃지 않은 왕이었다.¹⁵⁾ 이런 인종이 인척관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정 서를 총애하였을 리 없다. 인종은 그의 장남인 의종이 제승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廢太子까지 논의했던 철두철미한 왕이었다. 사사로운 정에 끌려 정 서가 경박했는데도 총애했을 까닭이 없다.

둘째, 이 ‘性輕薄’이라는 말은 의종 때 그가 처했던 상황과 관련하여 형성, 뒤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정 서는 의종을 위요한 궁중의 권력구조에 비굴하게 아첨하지 않았으며, 반대파와 잘 융화되지 않았다.¹⁶⁾ 그런관계로 정 함, 김 존중¹⁷⁾ 등 반대파 무리에 의하여 ‘性輕薄’이라는 말이 형성,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정 서를 비방하며 탄핵한 무리들은 대체로 宦者들로서 왕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런데도 정 서는 의종에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배자제승 문제로 논란이 분분했던 대령후曠의 집에 드나들면서 무리를 모아 夜聚宴飲했던 것이다. 이것은 반대파들에게는 경박하다는 식으로 평할 근거를 제공하는 격이 되지만, 오히려 아무렇게나 권력에 빌붙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고자 한 그의 인생관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이런 관계로 정 서를 반대파들이 경박하다고 했을 것 같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통념으로 고착되지 않았나 싶다. 이상의 논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의 성품은 경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신대로 살아가는 자아의식이 강한 의지형이며, 의리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정 서가 유배된 처지에서 의종을 닮은 것으로 하여 노래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거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15) 「高麗史節要」卷九 仁宗恭孝大王條 “...性仁孝寬慈 好學多才 待師友以禮...”

16) 이에 대하여는「夜聚宴飲」의 항에서 논구됨.

17) ① 鄭誠: 毅宗의 乳繼을 그의 처로 삼아 內侍가 되고, 鄭叙와 반대적인 입장에서 행동했으며, 毅宗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다. 鄭叙 등 여러 사람을 부고하여 귀양가게 했는데, 자신도 무고죄로 탄핵을 받았으나, 毅宗의 사면으로 복직했다. 벼슬이 權知閣門監에 이룸.

② 金存中: 정함파로서 정함의 추천을 받아 관료에 올랐으며, 「廢太子議」에서 의종을 구출한 侍讀 정승병이 죽은 후 그 자리를 차지함.

2) 정 서의 행동에 관한 기록으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밤에 무리를 모아 연음했다(夜聚宴飲)”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록은 고려사 권 97 열전 제 10 정 항조 등¹⁸⁾에 나온다. 정 서는 이 事端이 빌미가 되어 의종 5년에 동래로 귀양가게 된 것이다. 정 서는 의종과 태자위 계승문제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대령후 경의 집에서 무리를 모아 연향을 베풀며 은밀히 종실 驥과 친분을 맺었다는 것이다. 대령후 경은 인종의 2남으로 도량과 인품을 갖추고 있어 인심을 얻은 인물이다. 그러므로 모후 공예태후도 그를 더 사랑하여 태자로 책봉하고자 했다. 그런데 정 서는 의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공예태후와의 인정상 관계를 고려했음인지, 경조부박하고 황음연락에 빠진 의종의 인품을 혐오했음인지, 또는 대령후 경의 인물됨에 감동했음인지 경을 가까이했던 것이다. 더구나 정 서는 공예태후를 도와 경의 태자 책봉을 적극 후원한 사람이다. 이런 등의 이유로 볼 때 정 서의 경과의 교분은 의종에게는 큰 격정거리로 부각됐을 것이며, 또한 폐태자의에 올랐을 때의 충격과 상처를 다시 자극하는 결과로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파에게는 그를 배척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의종의 정 서에 대한 배척심과 증오심은 심화되고 구체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위에 정 함, 김 존중의 무고행위가 발생하자 어느 누구보다도 의종 자신이 능동적으로 정 서를 귀양 보냈다고 볼 수 있다. 정 서는 의종의 가슴 속에 자신을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침잠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까닭이 없다. 정 서가 의종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두려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령후 경의 집에 드나들면서 연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은 의기에 찬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로 미루어 보아

18) ① 「…交結大寧侯顯常與遊戲 鄭誠金存中等 誣構叙罪以聞 毅宗疑之 臺諫劾叙 陰結宗室 夜聚宴飲 乃流于東萊…」

② ①과 같은 책중 대령후 驥조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음. 즉 「…先是 存中與太后妹 孀內侍郎中鄭叙 及后弟承宣任克正有隙 叙性輕薄有才藝 交結大寧侯常與遊戲……遂其第宴樂遊戲…御史臺又以叙陰結宗室 夜聚宴飲……杖流叙于東萊…」

정 서가 配所에서 의종을, ‘님’으로 하여 哀傷流洒한 연군의 노래 정과정곡을 창작 영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동래의 配所에서 거제현으로 재 유배되어야 했던 그가 그리움이 충일된 노래를 반감의 대상이었던 의종을 향해 불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정 서가 대령후 경의 집에서 ‘夜聚宴飲’했다는 것은 정 서의 의종에 대한 불만 내지는 반감, 대령후 경에 대한 제속 지지를 시사하는 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달리 의종과 그 반대파들에게 정 서를 배척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

3. 의종의 인물

앞에서 단편적으로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의종의 인물됨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고려사절요 권 11 의종 장효대왕조에 “성질이 놀이와 잔치를 좋아하고, 못 소인과 친압하였다”¹⁹⁾고 기술되고 있다. 의종은 재위 중에 문헌에 표현된 대로 못 소인과 친압했고(狎群小), 성질이 놀이와 잔치를 좋아하여(性好遊宴) 사지의 질서를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하에 의종의 인물됨을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부왕인 인종은 태자로 책봉됐던 暉(의종)을 폐하고 차자인 대령후 경을 태자로 책봉하려 했었다는 것은 앞의 논급과 같다. 그러나 暉을 보좌했던 侍讀 정 습명이 극력 그를 옹호하였던 관계로, 暉은 폐태자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²⁰⁾ 인종이 폐태자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의종이 능히 계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때문이다. 이러하다면 의종은 필시 현군은 못 되었을 것이다. 이는 ‘太平好文之主’란 아침의 말을 믿고 문신만 우대하다가 결국 폐출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의종은 그를 ‘폐태자’의 위협에서 구해준 정 습명이 간하는 것을 듣기 싫다

19) 「諱暉字日升 古麟微 仁宗長子 母恭肅太后任氏 仁宗五年丁未 四月庚午生 性好遊宴 狎群小 卒及于禍 在位二十四年 壽四十七」

20) 「高麗史節要」卷十一 毅宗莊孝大王 五年條

「初王爲太子 襄明侍讀 仁宗慮太子不克負荷 任后亦愛次子 將立爲太子 襄明盡心調護 故得不廢」

하여 배척하고는, 그의 자리에 김 존중을 앉혀 횡포를 자행하게 했던 것이다.²¹⁾ 이런 사례로 봐도 의종은 현신과 간신을 구별할 줄 모르는 암군이라 하겠다. 이런 그가 대령후 경과 친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음한 정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인데, 정 함과 김 존중 등의 참소까지 있었으니 정 서를 유배시키는 사건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 앞에 이야기된 의종의 인물됨을 좀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기록은 성품이 놀이를 좋아하고 못 소인배를 가까이 했다(性好遊宴狎群小)는 것이다. 이러한 의종의 성품때문에 궁정은 피폐할 대로 피폐하였고 중신들은 서로 헐뜯고 모략하여 당시의 상황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²²⁾ 그래서 뒤의 사신들은 “의종이 능히 그 측근의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하여, 風憲을 능멸하게 하여 국법을 어지럽혔으며, 대간의 말을 듣지 않고 법을 굽혀 놓아 주었으니, 群小에게 화를 당한 것도 당연하다²³⁾”고 하였다. 의종은 격구놀이를 병적으로 좋아했다. 즉위 원년부터 왕의 지나친 격구놀이를 臺諫에서 수차 간했다. 의종은 격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毬杖을 어사대에 주었으나, 곧 복원에 나와 놀면서 좌우 侍人에게 “나의 공치는 기술을 다시는 시험하지 못 하리라”하고는 격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기념으로 다시 공을 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했다.²⁴⁾ 이와 같이 불건전한 생활에 젖은 의종에게 정 서의 행위가 관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 서와 의종의 관계가 서로 그리워하는 군신관계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의종은 현육간에도 불화했으며, 도참사상을 믿어 형제들을 매사에

21) 高麗史節要 卷十一 毅宗莊孝大王 五年條「…襄明 自以先朝顧托 知無不信 王憚之 金存中鄭誠日夜短之會 襄明告病 以存中權代其職 襄明揣知王意 却藥而死…」

22) 이 병도: 한국사 (중세편), 을유문화사, 1961, pp. 420—428.

23) 高麗史節要 卷十一 毅宗莊孝大王 五年條

「…毅宗不能制其私人 便之陵轍風憲 以拂國法 已過矣 不聽臺諫之言 屈法宥之 宜及於群小之禍也…」

24) 앞의 책 毅宗二十一年條

「…臺諫 以上章言事不報 歸第 王乃下毬杖于御史臺 臺奉詔鎖弄昌宮北門 以禁群小出入 王遊北園謂左右曰 吾擊毬之技 無復試矣 已而 取毬擊之 人莫有及者…」

의심했다. 왕 5년에는 정 서와 관련된 모든 사람²⁵⁾ 을 잡아 가두고 대령 부를 파하였으며, 曠의 종 金岳 등은 태형을 가하여 유배시켰다. 왕 9년에는 그의 아우인 승려 충의와 홍왕사에서 교우했던 서공 장의 관직을 삭탈하고 直長同正 이 구수를 인주로 유배시켰다.²⁶⁾ 왕 11년에 曠을 천안 부로 귀양보냈다. 또 왕 11년에 卜者 영의의 말을 듣고 나라의 우환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영홍사 경홍사 등 5개 사찰에 불사를 베푼 일이 있었다. 逆民의 후예인 여자 몸에서 태어난 영의는 성품이 간팠하여 온갖 요사스런 말로 의종을 현혹시켰다. 복자 영의가 대궐 동쪽에 翼關을 이룩하면 가히 그 기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익양후 호의²⁷⁾ 집을 탈취하여 그곳에다 별궁을 지었다. 또 익양후 호가 인심 얻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변란을 미리 막는다는 구실로 거처를 단곳으로 옮기게 하는 등²⁸⁾ 피해망상증의 행위를 했다. 流失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대령후 경의 家僮 나 언, 유 성, 황 익 등에게 혐의를 두고 엄히 국문하니, 이들이 허위 자백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세 사람과 유 성의 처를 참수하였다. 이상의 기록에서 보이는 의종의 행위는 태자로 있을 때 대령후 경으로부터 태자위를 위협당한데 대해 마음 속에 남아 있던 불만, 시기 등이 혼합되고 축적되어 열등 콤플렉스로 투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형제들을 병적으로 의심하고 경원시하여 대령후 경을 귀양보내고, 익양후 호 등 형제를 배척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의종이 정 서를 타매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수궁이 간다. 그리고 의종의 형제 배척 행위는 동병상련의 처지인 정 서와 이들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한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 이상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 서는 의종 아닌 명종(肱)을 ‘님’으로 하여 연군가요인 정과정곡을 지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5) 정 서가 대령후 경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夜聚宴飲’한 일과 관련된 사람들.

26) 高麗史節要卷十一 毅宗十一年.

「…條流弟大寧侯曠于天安府 貶南京留守崔惟濟 爲忠州使 工部尙書任克正……徒配鄭嗣文于巨濟縣 嗣文卽叙也…」

27) 高麗史節要卷十一 毅宗十一年條 「…榮儀者 關東新成翼關 則可以延基 王奪弟翼陽侯第 創離宮…」

28) 註32를 참고할 것.

4) 의종이 嬖臣 宦者 등 곳 소인배들인 문신들 틈에서 격구 戲馬 雜戲와 遊幸, 宴樂에 탐닉한 관제로 기강은 문란해지고 민심 또한 흉흉해졌다. 더우기 離宮과 別宮을 짓기 위해 여항의 이름난 좋은 집을 탈취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부역장으로 끌어내어 山齊와 野墅를 세우고 무시로 거동했으며 대신들의 집들을 별궁으로 삼기까지 했다. 민가를 헐고 그 곳에 정자를 짓고 옥들을 갈아서 환희대, 미성대라 이름하였고 먼 데 물을 끌어들여 폭포를 만드는 등 황음과 사치가 극에 달했다.²⁹⁾ 그리고 놀이 때마다 시문을 짓거나 또는 시제를 주어 侍人들에게 시를 짓게 하여 여러 가지 상을 주는 등 문신들을 후대하였으나 반대로 무신들은 천대를 했다. 특히 아첨의 무리들에 의해 재 울리고 기도하는 데 많은 재물이 탕진되고 정치에 부지런해야 할 시간과 정력을 주색이나 유희적 詩會에 들렸으므로 더욱 무신들의 분노를 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의종은 동왕 24년 8월에 정 중부, 이 의방, 이 고 등 제 무신에 의하여 폐출되고, 9월에 거제로 추방당했던 것이다. 무신의 난 때 문신들은 모조리 주살되었으며, 왕 자신도 명종 3년에 김 보당 등에 의한 복위운동에 관련되어 경주에서 이 의민에게 피살되었다. 특히 무신의 난이 발발했을 때 신하들은 한 사람도 왕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죽으려 하지 않았으며 체대한 뒤에도 의종에게 오히려 불리한 말들만 했던 것이다.³⁰⁾ 이로써 얼마나 의종이 백성의 원성을 샀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평소에 충성스럽다고 믿었던 신하도 왕좌를 지켜 주려 하지 않았다는 데서 충분히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배되기 전에도 의종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고, 1차 유배 후에 소환되기는 커녕 다시 유배되었던 정 서가 ‘흐마 나룰 니즈시니 잇가’ 하면서 연군의 노래를 불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무신난 이후 1차 소환시에 정 서가 소환된 것을 보면 무신들에게는 미움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만약 폐출된 의종을 그리워하면서 연군의 노래를 불렀더라면 무신의 미움을 받아 정 서는 소환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29) 이 병도: 한국사 '중세편', 을유문화사, 1961, pp. 452-457

30) 『高麗史節要』卷十一 毅宗莊孝大王 二十四年條

「…且禍亂之初 無一人效死 遷代之後 造僞飾辭如此 尤可嘆也…」

4. 정 서와 의종과의 관계

여태까지의 논술에 대체로 언급된 것을 한 번 더 부연하면서 이들의 사이를 서술하고자 한다.

1) 정 서와 의종과는 군신의 관계이면서도, 정 서가 의종의 이모부라는 인척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2) 정 서는 태자위 계승관계로 논란이 많았던 대령후 경과 긴밀히 교류하면서 무리를 모아 경의 집에서 연습했다. 이는 ‘폐태자의’ 때 대령후경의 편에 섰던 정 서의 일관된 입장을 말해주는 사실로서, 의종과는 소원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려 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³¹⁾

3) 의종 5년에 정 서가 대령후 경의 집에서 ‘夜聚宴飲’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정 서를 귀양보내게 된 것은 사실상 의종 자신의 뜻이라 볼 수 있으며, “조정의 물의에 의하여 부득이 보내니 곧 소환하겠다”라고 한 말은 자신의 입장을 호도하려는 임시 방편적 핑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 서가 동래로 귀양가고 다시 거제현으로 再配되어 명종에 의하여 소환될 때까지 여러 차례 「大辟以下」의 죄인에게 내린 사면이 있었으나 정 서는 매번 제외되었던 것이다. 정 서가 축출되고 난 후에 내린 大赦令을 참고삼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毅宗 8년 4월 | ○ 동왕 15년 7월 |
| ○ 동왕 10년 4월 | ○ 동왕 16년 4월 |
| ○ 동왕 11년 3월 | ○ 동왕 17년 4월 |
| ○ 동왕 12년 3월 | ○ 동왕 18년 4월 |
| ○ 동왕 12년 7월 | ○ 동왕 23년 4월 |

4) 의종은 정 서에 대한 처우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간신 정 함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관대했다. 이하 몇 가지를 적어 본다.

31) 의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의종은 廢太子讞 때 깊은 마음의 상처로 그가 왕이 된 뒤에도 공예태후가 대령후 驥을 太子로 삼으려했던 사실을 원망하고 불명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다. 공예태후는 그의 어머니로 관여했다. 그러나 정 서는 이모부로서 대령후 驥과 친했다. 의종이 어머니 태후에 대하여 불명한 사실만 보더라도 정 서에 대한 의종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高麗史節要 卷十一 毅宗壯季大王 五年條 참조.

(1) 의종 5년 5월에 정 함은 犀帶사건과 무고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權知閣門祗候에 임명됨.

(2) 동왕 5년 5월에 정 함이 대간을 포함한 사건이 발생하여 탄핵을 받았다. 이때 정 서도 대령후 경의 집에 드나 들었다는 죄목으로 같이 탄핵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정 함은 파직되고 정 서는 동태로 귀양감.

(3) 동왕 6년 8월에 정 함은 다시 소환되어 내시에 증당된 반면, 정 서는 소환되지 않았음.

(4) 동왕 11년 4월에 정 함의 직위가 회복되었음.

(5) 동왕 11년 11월에 정 함의 告身³²⁾에 대신들이 서명을 하지 않자 左承宣 直門下省 이 원웅·右承宣左諫議大夫 이 공승에게 명령하여 告身에 서명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그 불가함을 간하고 듣지 않았다. 이에 다시 전하길 “경들이 짐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짐은 먹는 것이 달지 않고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고 울러대어 平章事 최 윤의, 右諫議 최 응청과 이 원웅이 공승 등은 마지 못해 서명하였으나 給事中 이 지심, 司諫 최 우보, 배경의 등이 서명하지 않아 전부 좌천됨.

(6) 12년 6월에 다시 정 함의 權知閣門祗候 계수가 문제되어 右承宣知御史臺事 이 공승, 中丞 송 청운, 侍御史 오 충정 등을 불러 위압적으로 告身에 서명하기를 명령하였으나, 이 공승이 뜻을 받들지 않아 견책당하여 내쫓김.

(7) 12년 7월에 知門下省事 신 숙이 혼자 대궐로 나아가 소를 올려 정 함의 벼슬을 삭제하기를 죽음으로써 청하여 정 함의 벼슬을 삭제하는데 성공함.

(8) 이 해 9월에 의종은 다시 정 함을 權知閣門祗候에 임명했음. 정 함의 告身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여 殿中侍御史 김 돈중을 좌천시켰음.

이런 사실들로 보건대 정 함에 대한 의종의 은총이 큰 것에 반해서 정 서에 대한 의종의 사랑은 적었거나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정 서와 의종의 관계는 소원한 관계, 나아가 정 서가 의종을 향해 연군 시가를

32) 임명장

움을 수 없었던 관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들 수도 있다. 고려사절요의종 15년 10월조를 보면 정 서의 처 임씨가 왕과 대신을 저주한다는 무고사건이 일어 났다고 적혀있다.³³⁾ 이런 무고사건 등은 무고를 한 子和나 義章이라는 사람들이 사건을 조작할 만큼 정 서와 의종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라 하겠다. 따라서 당사자인 정 서가 의종에게 연군의 마음이 생겨, 그를 그리워 하는 정과정곡을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정 서와 명종과의 관계

의종이 폐출된 뒤에 대령후 경이 즉위하지 못하고, 무신들에 의하여 익양후 호가 즉위했다. 동명상련의 처지였던 호가 즉위하자, 정 서는 제 1차로 소환되었다. 의종이 폐출된 등왕 24년 9월에 赦令이 내려 畫鷄流矢³⁴⁾의 사건으로 유찬된 사람들과 함께 정 서 일파인 김 시영, 이 작승³⁵⁾ 등이 소환되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정 서와 명종의 관계는 정 서와 의종과의 관계와는 달리 긴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이 됐다. 익양후 호(명종)은 성질이 어질고 효행이 있었으며, 학문을 좋아했다. 그래서 인심을 얻었다.³⁶⁾ 이는 명종이 자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가 조정에서 일어난 사건

33) 多十月 感陰縣人子和義章等誣告鄭叙妻任氏 與縣吏仁梁呪詛上及大臣 王命關門廝侯林文黃按問 乃子和與仁梁有隙陰欲之也 於是投子和義章于江降感陰爲部曲

34) 畫鷄사건은 의종 16년 9월에 왕의 총애를 받던 궁녀가 鑿道로서 닭을 그린 그림을 불려 왕의 요숙에 넣어두었다가 발각되자 汪滯阿正 김 의보가 내시 윤 지원과 더불어 공모하고 저주한 것이라 무고하여 김 의보는 목베고 윤 지원은 무인도로 귀양보낸 사건을 말하며, 유시 사건은 의종 21년 봄 정월 연등하는 날 왕이 봉은사로 갔다가 밤에 돌아와 관공루에 이르렀을 때 좌중신 김 돈중의 말이 본래 잔이 잘 들지 않은 데서 정과 북소리에 놀라 어떤 기사 의 矢勝을 들이 받아서 화살이 튀어나와 鬮에 떨어졌는데 돈중이 이 일을 자수하지 않았다. 이에 왕은 流矢가 날아온 줄 알고 빨리 환궁하고 府兵가운데 용력있는 자를 뽑아 내순 점이라 이름라고 순찰을 칠지하 하였다. 한편 중한 상을 내려도 잡히지 않으므로 왕은 대령후 경의 家僮 나 언, 유 성, 황 익 등을 의심하여 이들과 이들의 처를 참형하고, 그의 14명도 귀양 보였던 일을 말함.

35) 이 작승은 정 서의 매부로 정 서의 일차 유배시 집에 있으면서 정 서의 탄핵에 편여하지 않았다 하여 좌천되었음.

36) 「高麗史節要」卷之十一 明宗光孝大王條에 「驛皓字之且 舊諱曰 毅宗母弟 仁宗九年辛亥 十月庚辰生 性仁孝文學 初封襄陽侯 鄭仲夫廢毅宗 迎立之

의 전말을 모를 리 없다. 의종보다 4년 아래인 그가 왕위에 오를 때는 이미 나이로도 40세가 넘었다. 그러므로 이도부인 정 서의 일을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의종에 의하여 억압받은 같은 처지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정 서는 곧 소환됐다고 보겠다. 어쨌든 정 서가 대령후 경과 관계가 긴밀했던 것처럼 익양후 호와도 친밀한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례서 명종이 즉위하자 자신의 심정을 명종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명종을 ‘님’으로 하여 정과정곡을 지었다 봄이 마땅하다 하겠다.

Ⅲ. 결 론

정과정곡은 연군시가류에서는 원조격인 작품이다. 연군가요에서 연군의 대상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야만 작품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의 주요 목적은 정 서가 본 작품에서 누구를 연군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하는 문제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배경의 개요, 정 서의 인물, 의종과 정 서와 관계, 명종과 정 서와의 관계 등을 밝혀 보았고, 이 결과 정 서가 연군의 대상으로 삼은 왕은 지금까지 통념으로 여겨 온 의종이 아니라 명종임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정 서는 暎(의종)의 인품을 알고서 의종을 반대했다는 점, 즉 ‘폐태자의’ 때 대령후 경을 지지했다.

2. 의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정 의의 집에서 ‘밤에 무리를 모아 연을 했다’는 점, 이는 정 서와 의종이 처음부터 경원시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왕 5년에 정 서를 동태로 귀양 부내면서 의종이 ‘今日之行迫於朝議 不久當召還’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많은 횃수의 대사령이 있었음에도 의종은 끝내 정 서를 소환하지 않고 도리어 거체로 재유배시킨 점에서 추찰할 수 있다.

3. 이와는 달리 왕은 자신의 乳媪을 처로 삼은 정 함에 대하여서는 신하들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는 은전을 베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도 정 서와 의종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말해 준다.

4. 의종은 경조부박한 성품을 지닌 압군이었다. 반면 정 서는 자아의식이 강한 재예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그가 끝내 의종에 의하여 배척만 받아 오던 중,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던 익양후 호(명종)가 왕위에 오르자 명종을 향해 정과정곡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 서는 명종이 즉위한 해(의종 24년 10월)에 소환되었던 것이다.